

특별기획



군산소방서, 가을 수확철 농기계 교통사고 주의 당부

군산소방서는 가을 수확철로 접어들면서 농기계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 및 교통사고 발생 위험이 높아져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지난 19일 오후 대어면 농로에서 경운기사고로 최모씨가 구조됐고, 앞서 8월에도 농약살포기가 논으로 전복되면서 운전자가 기계에 깔리는 등 해마다 농기계로 인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

도로교통공단 통계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5527건의 농기계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732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고 발생장소는 농경지와 접해 있는 지방도가 1540건(28%)으로 가장 많으며, 사고원인으로는 안전의무 의무 불이행이 4097건(74.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소방서 관계자는 "도로 가로등이 설치되지 않은 읍·면 지역은 시야확보가 제한되어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 야간복거불이나 후미등을 설치하고, 지방도나 농로에서는 안전 수칙을 준수하여 더욱 신경을 써 줄 것"을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역량강화 순회토론회

익산경찰서 중앙지구대는 지난 17일, 19일 양일간 지역경찰과 익산여성전화 가정폭력상담소장, 한국가정법률상담소 익산지부부설 가정폭력상담소장, 전북서부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전문가와 현장 경찰관이 함께하는 가정폭력·아동학대 대응 역량강화 순회토론회'를 실시했다.

최근 가정폭력·아동학대에 대한 국민적 충격과 사회적 파장을 일으켜 이에 대한 선제적인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인식전환과 출동 현장에서 관련 기관·여성 의전화, 아동보호전문기관과의 유기적 협력 제고를 위한 전문가와의 대화 및 상호 이해를 위해 이번 순회 토론회를 실시했다.

중앙지구대장 김용대 경감은 "현장경찰관이 일선에서 피해자를 접하고 협조 요청시 전문가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원활한 협조 체계가 구축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 현장경찰관의 전문성을 향상시키고 인식을 개선해 신고 대응 역량을 키우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 북한이탈주민 위문금 전달

익산경찰서 보안협력위원회(위원장 신규병)에서는 중증 뇌졸중으로 장기간 투병중인 북한이탈주민 병상을 찾아 위문금을 전달 격려하여 사랑의 나눔으로 낯선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탈북민에게 훈훈한 정을 전달했다.

익산경찰서 신변단속과 보안협력위원회 신규병 위원장 등 위원들은 지난 19일 익산서 관내 W 요양원에서 중증 뇌졸중으로 오랜 투병생활을 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이모씨의 병상을 찾아 위문 격려하고 사랑의 나눔으로 낯선 환경에서 외로워하는 탈북민에게 훈훈한 정을 전달하여 주변의 호평을 얻고 있다.

익산시는 북한이탈주민들의 안정적인 조가정착과 가정폭력 등 4대 사회악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탈북민 보호 프로그램을 통해 1:1 멘토 및 가족결연 행사등을 추진하여 병원 치료비를 전달하는등 앞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을 약속했다.

투병중인 북한이탈주민 이씨는 평소 신변보호관들과 보안협력위원회에서 여러 탈북민들을 위해 따뜻한 보살핌과 지원으로 항상 고마워했는데 "어렵고 외로운 북한이탈주민들에게 병원비를 지원하고 위문 격려해주셔서 눈물이 난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익산=정양원기자

익산 학교급식지원 심의회 개최

내년도 공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158개교에 89억원 지원 계획

익산시는 20일 오후 시청 회의실에서 이자영 부시장, 교육지원청, 영양교사, 급식단체, 학부모대표, 농가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심의회를 개최했다.

이번 심의회에서는 2017년도 학교급식지원을 위한 무상급식, 친환경농산물, 우수농산물(시 자체), 유정란·전통장류(시 자체) 지원금액에 대한 예산에 대해 심의하고, 그 외 급식발전 방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내놨다.

2017년도 학교급식비는 공립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158개교(평생학력인정시설 백제고 포함) 3만2,216명에게 지자체 지원예산으로 총 89억 300만원(도 33억4,600만원 시 55억

5,7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12월 시의회에서 최종 예산이 확정된다.

무상급식비는 63억4,900만원(도 28억 2,900만원 시 35억2,000만원), 친환경농산물 10억9,800만원(도 5억1,700만원, 시 5억8,100만원), 우수농산물은 8억7,000만원(시 100%), 유정란·전통장류 5억8,600만원(시 100%)을 지원할 계획이다.

세부적으로 무상급식비는 전년대비 무상급식비가 200원/1식 인상되어 초등학교 2,400원/1식 중·농촌고 3,100원/1식을 지원하고, 친환경·우수농산물 지원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구입비 전액 지원, 유정란, 전통장류 지원사업은 공급품목의 50~60%를 차액지원 하게 된다.

/익산=정양원기자

군산시, 금고 선정 전북은행 탈락에 논란

군산시의회, "선정과정 투명한 공개와 재심" 촉구

군산시 2000억원대 특별회계를 관리할 시금고 선정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군산시의회는 군산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군산시 금고 선정과정의 투명한 공개와 재심의"를 촉구했다.

시의회는 "이번 심의결과는 군산시가 항포기업을 외면하고 홀대한 행위이자 군산시민의 자존심을 짓밟는 결과"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군산시가 점차 지역 경제의 큰 쟁점인 지역은행을 외면하고 경제성과 수익만을 추구한 채 일반 시중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특히 "군산시는 지역상권 살리기, 지역업체 및 지역생산물 이용하기를 주장하면서 다른 한쪽에서는 지역기업을 탈락하는 정책을 펴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어 "지역은행과 일반 시중은행과의 평가는 동일선상에서 평가될 수 없는 항목임에도 평가의 잣대를 같은 선상에서 놓고 평가한 것부터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시금고 심의의 문제가 없으며 재심의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이날 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군산시

2017년부터 시금고 선정 문제와 관련, 군산시는 심의과정에 아무런 문제점이 없으며 금고재심의는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발표했다.

시는 "이번 시금고 심의는 9명의 심의위원이 행사부 예규와 군산시 조례에 따른 공정한 심의로 객관적·주관적 평가로 이루어졌다"고 반박했다.

군산시는 공정한 평가가 이루어진 만큼 일부에서 요구하고 있는 재심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14일 금고 지정 심의위원회를 열고 8100억원대 일반회계와 기금을 관리할 제1금고로 NH농협은행을, 2080억원대 특별회계를 관리할 제2금고로 KB국민은행을 각각 선정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해경, 국지성 짙은 안개 발생 통항선박 주의 당부

최근 큰 일교차로 해상에 짙은 안개가 발생하고 있어 운항선박의 주의가 요구된다.

군산해안경비안전서(서장 장인석)는 10월 들어 군산해안과 고군산군도, 새만금 방조제 일원에 국지성 짙은 안개(가시거리 50m)가 발생하고 있어 통항선박과 해양종사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해무(海霧)는 해안에서 발생한 공기가 차가운 바다와 만나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데, 그 층이 두껍고 범위가 넓어 육지에서 발생한 안개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소형 레저보트의 경우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해장비가 없기 때문에 안개에 갇혀 표류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지난 6일, 군산시 말도 인근 해상에서 4명이 타고 있던 레저보트(2t)가 어선(2t, 승선 2명)과 충돌하면서 2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한 등 짙은 안개로 인한 사고는 올해가 차가운 바다와 만나 짙은 안개가 형성되는데, 그 층이 두껍고 범위가 넓어 육지에서 발생한 안개보다 오래

지속된다고 해경은 설명했다. 특히 소형 레저보트의 경우 선박의 위치를 알려주는 항해장비가 없기 때문에 안개에 갇혀 표류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센터(VTS)와 교신해 통항선박을 살피는 한류 소리와 불빛으로 다른 선박에게 위치를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

또, 출항 전 장비를 점검하고 소형 레저보트의 경우 유일한 통신장비인 휴대전화의 어전 배터리 소지 및 추가 연료를 확보해야 한다.

군산해경 김성수 경비구조계장은 "안개로 인한 사고는 충분히 대비하고 주의를 기울이면 막을 수 있는 만큼, 안전에 주의를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회' 개최

군산시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한 본격적인 시동을 걸었다.

시는 20일 농업기술센터 회의실에서 농정과와 건축경관과, 환경정책과, 축종별 단체대표 등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무허가 축사 적법화 협의회'를 개최했다.

무허가 축사란 가축사육시설(축사), 가축분뇨배출시설(퇴비사) 등이 건축법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 등에 따른 허가 절차 없이 지어진 건축물을 말

한다. 무허가 축사는 가축분뇨법에 따라 배출시설에 대한 폐쇄 또는 사용중지 명령 또는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실제 법령 집행은 2018년 3월 24일까지 유예해 놓은 상태다.

이에 군산시는 지난 7월 협의회 개최 시 건의 됐던 ▲이행강제금 감경 ▲가축사육제한 조례제정 시점 이전의 축사농가에 대한 조례적용 유예 등이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적법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축종별 대표들의 ▲비닐하우스 축사의 적법화 절차 ▲가설건축물 인증 범위 ▲건폐율 산정 등의 경우에 대한 질문이 이어지는 등 뜨거운 관심을 보였다.

김성원 군산시 농정과장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는 관련법상 건폐율 조정, 가축분뇨처리시설 제의 등을 통해 무허가 축사들을 현행법에 맞는 상태로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진행절차의 지속적 홍보를 통해 지역 축산농가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치안성·우수경찰관서 평가 군산경찰서,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

군산경찰서(서장 김동봉)가 경찰청이 실시한 2016년 치안성과 우수 경찰관서 평가에서 최우수 경찰서로 선정됐다.

전국 251개 경찰서를 대상으로 한 이번 평가에서 군산경찰서가 1위를 경남 창원중부서가 2위, 경기 북부일선서가 3위를 기록했다. 군산경찰청은 2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1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대통령 표창과 함께 500만원의 포상금을 수상했다.

이번 경찰관서 성과평가에서 군산경찰청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기초치안 확보 △사회의 중심을 바로잡는 생활법치 확립 △세심한 조직혁신으로 업무중심 조직 문화 정착 분야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군산경찰이 서울이나 수도권의 경찰서들을 모두 제치고 당당히 전국 최고의 경찰서로 우뚝 솟으며 존재감을 드러낸 비결은 "동료에게 인정받고 시민에게 칭찬받는

군산경찰"을 핵심목표로 삼은 김동봉 서장의 리더십과 내외부적으로 조직 구성원들의 전폭적인 공감과 지지로 이뤄졌다는 평가이다.

김동봉 서장은 "전국 경찰을 대상으로 한 치안성과 우수관서 선발에서 전국 1위의 영예를 안은 것에 기쁘지 않을 수 없다"며 "이처럼 탁월한 성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치안협조와 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힘들고 열악한 근무 여건에서도 불평 없이 묵묵히 맡은 바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 준 군산경찰서 직원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동료에게 인정받고, 시민에게 칭찬받는 경찰이 캐치프레이즈가 바로 우리 군산경찰이 가고자 하는 바로 그 길이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곤기자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 현장탐방 학습 실시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 제3차 임의회가 오는 22일 근대문화유산 바로알기 현장탐방 학습을 실시한다.

제3차 임의회 일정은 자율적인 참여와 권리의 주체로서 운영되는 어린이·청소년 의회가 의원들의 근대문화유산 현장탐방을 통한 애환심 고취는 물론 어린이·청소년 시기에 맞춘 공개발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자 마련했다.

현장탐방은 어린이의회 의원 30명, 청소년의회 의원 30명이 참석한 근대역사박물관, 근대미술관, 풍류사, 발신리 5층서탑, 군산 3.1운동 기념관 등을 방문해 문화해설사의 생생하고 알기 쉬운 현장해설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탐방을 통해 어린이·청소년 의원들의 애환심을 높이는 학습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된다.

차정희 어린이행복과장은 "군산시 어린이와 청소년을 대표하는 의원들이 지역 근대문화유산 현장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학습해 과거 역사를 거울삼아 더 밝은 미래를 열어가는 주역으로 자리잡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의회는 지난 7월 발대식을 갖고 9월에는 정기회의를 통해 의장 등 임원진을 선출했으며, 9월 임시회에서는 정책제안 토론 및 군산시 어린이·청소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산=문정곤기자

중증장애인들이 희망 일터 '꿈앤카페' 개소

장애이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시민들에게는 우수한 품질의 커피를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하는 '꿈앤카페'가 군산시청 1층에 문을 열었다.

'꿈앤카페'는 20일 개소식을 갖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군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에서 운영하는 꿈앤카페는 지난해 한국장애인개발원 주관 공공기관연계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사업 대상으로 선정돼 카페 시설 설치비 및 집기구입 비용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카페에는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웠던 중증장애인이 4명을 포함해 총 5명의 바

리스타가 근무하게 된다. 이곳 카페에서 일하게 된 바리스타들은 "우리에게도 새로운 희망이 생겨서 기쁘다"며 "열심히 배우고 일해서 우리 나라에서 제일 훌륭한 바리스타가 되어 모든 사람들에게 맛있는 커피를 제공하고 싶다"고 말했다.

문동신 군산시장장은 "바리스타를 공부한 중증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해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건강한 복지사회 구현의 토대를 만드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문정곤기자